2013년도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결과보고서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후원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Life Insurance Social Contribution Committee

KYOBO 교보생명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과 민간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또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고령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곳, 시니어사회공헌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13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결과보고서

목 차

1 시 작

사업배경 07

사업목적 08

실행방법 09

2 운영과정

일정 13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 15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및 최종 아이디어 선정 17

청년 DOER 모집 22

본선 (프로젝트 10주) 23

최종결선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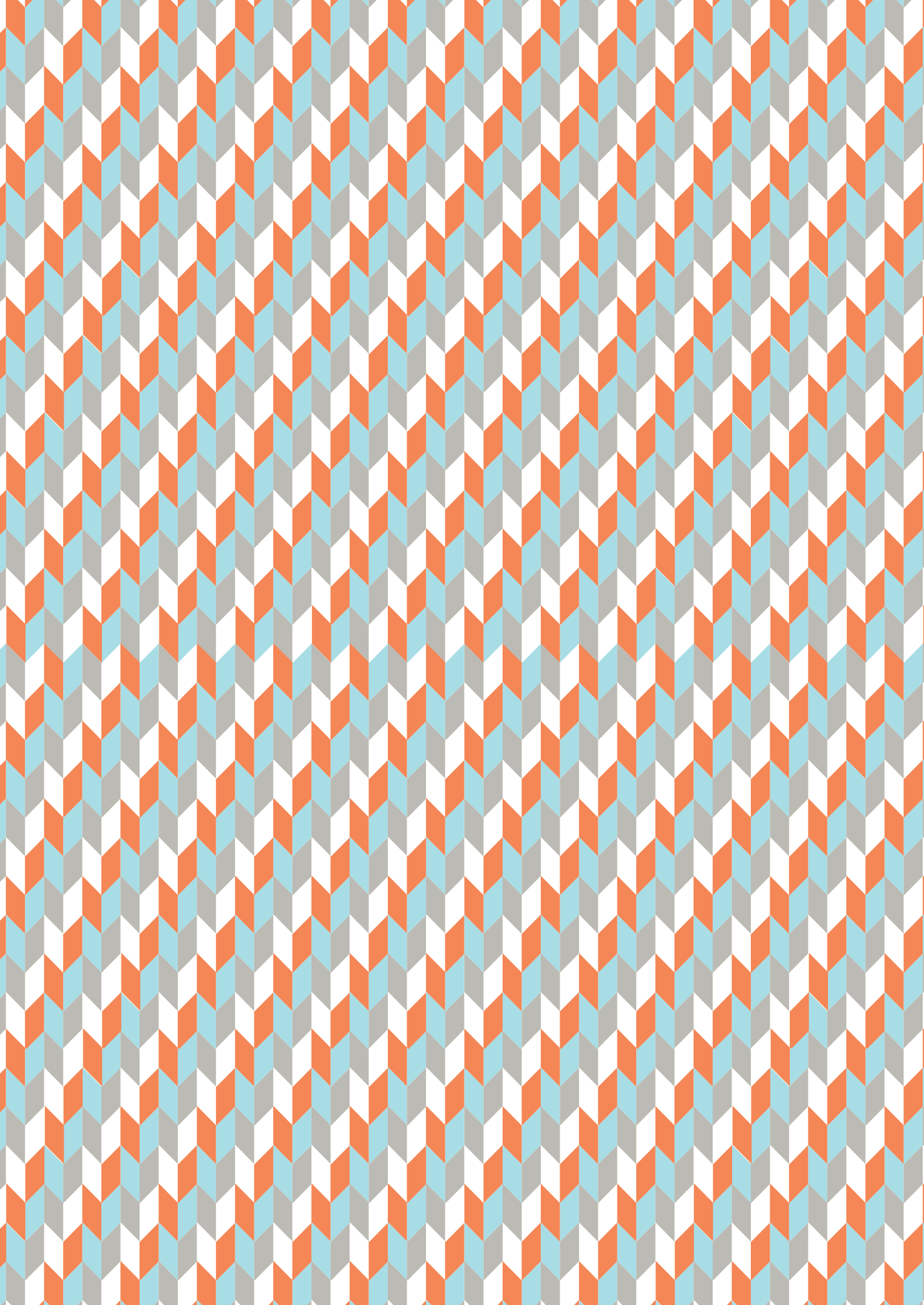
3 총 평

참가자 평가 41

총평 및 제안 53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배영순 선임연구원 alice@makehope.org
탁율민 연구원 sesil@makehope.org



SECTION 1

시 작

사업배경

사업목적

실행방법

사업배경

우리 시대에 고령화라는 키워드 없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8년 노인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 진입을 예약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인구분포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우리에게 고령화시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고령사회에 대한 일차적 반응은 고령 인구 확대가 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느끼는 세대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고령 인구로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고령 인구는 사회적 부담일 뿐' 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 인구를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일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인구학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2006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관련한 연구 및 교육을 기획하였다. 희망제작소가 특히 주목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전의 노인세대와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풍부한 직장 경험과 전문성이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사가 60% 이상이라고 파악하고[1]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입문 교육프로그램으로 '행복설계아카데미' 를 실시하였다. 행복설계아카데미는 지금까지 500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생 중 50% 정도가 공익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 희망제작소. 퇴직자NPO욕구조사 결과보고서. 2007.

2013년에는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특히 시니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니어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는 프로젝트로 설계하였다. 실행 부분에 청년 세대를 결합시켜 시니어와 청년 세대의 소통 및 공감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이 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동감하여 후원을 담당하였다.

아래는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의 목적과 실행방법을 요약한 내용이다.

사업목적

***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 영역 개척 및 확대**

- 베이비부머 은퇴자, 전문직 시니어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 소개

*** (시니어) 사회공헌모델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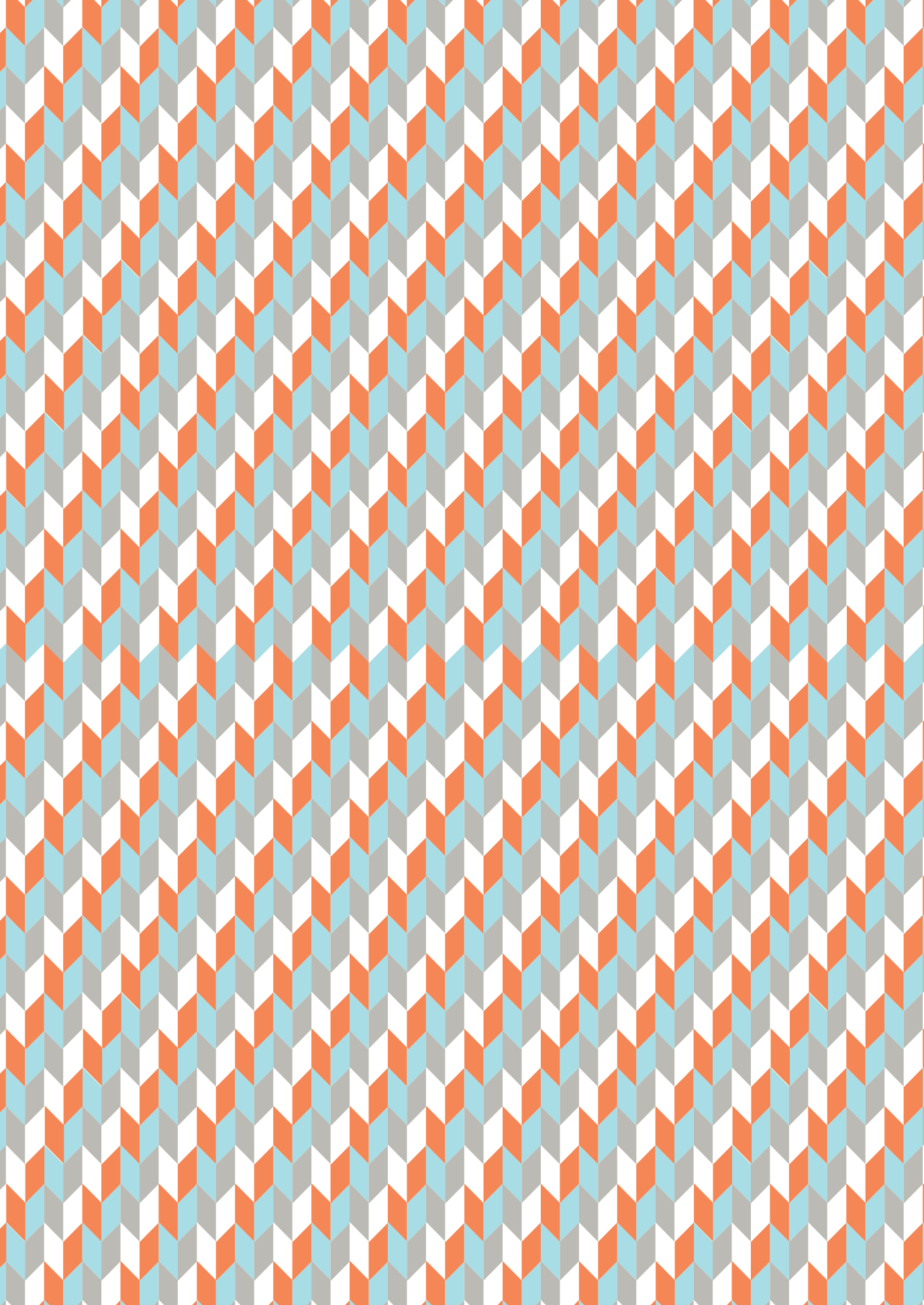
- 베이비부머 은퇴자, 전문직 시니어들의 성향과 욕구에 맞는 사회공헌모델 제시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제2의 인생을 사회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발굴
- 시니어들이 이웃과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 확산**

- 사회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
-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 마련
- 시니어 세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 이미지 및 인식 확산

실행방법

Propose_제안	시니어의 아이디어 제안
Cooperate_팀 결성	청년 Doer(주니어)와 시니어 제안자와 팀 결합
Action_실행	10주간 아이디어 실행
Festival_축제	최종 결선



SECTION 2

운영과정

일정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및
최종 아이디어 선정

청년 Doer 모집

본선 (프로젝트 10주)

최종결선

일 정

1) 전체 일정

날짜	내용	세부내용
5/2-6/16	시니어 아이디어 접수	웹페이지 오픈 / 온 ·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
6/19	아이디어 심사 발표	아이디어 심사, 응모된 아이디어 중 3배수 선정
6/21~30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아이디어 구체화, 실현화 및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오프라인 워크숍 진행
	실행계획서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18건에 대한 실행계획서 심사
7/1	최종 아이디어 발표	최종 아이디어 6건 발표
7/2~15	청년 Doer 모집	아이디어 실행을 함께할 청년 모집
7/20	본선 오리엔테이션	First Impression: 시니어와 주니어의 첫 만남, 제작소 및 사업에 대한 설명
		아이디어 공유, 팀 빌딩 및 팀별 아이덴티티 구축
		팀 지원금 지원
7/27	본선 워크숍	팀 빌딩 II, 팀별 논의 (팀 비전, 미션, 프로젝트 진행 계획표, 예산)
		프레젠테이션
8/12~14	중간 점검	프로젝트 실행 과정 및 속도 점검, 소셜 미션 재확인, 세대통합과정 확인
9/6~7		최종 점검
9/28	결선	결과물 발표 및 시상

2) 홍보

• 온 ·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포스터, 브로셔 및 영상 배포

홍보영상 : http://youtu.be/ZEdRutxniAI

시니어 아이디어 공모

1) 공모주제 : '당신의 꿈이 이웃(옆집, 동네, 지역사회 등)을 풍요롭게 합니다'

- 시니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웃과 사회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 나(시니어)의 꿈과 흥미를 활용하여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2) 참여대상 : 40대 이상 시니어 개인 혹은 팀 (3인 이하)

3) 모집건수 : 총 68건 접수 (중복 접수 가능하여 총 참여자 수는 61명)

4) 아이디어 모집 현황

- 분야는 사전에 별도 카테고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응모한 아이디어 내용에 따라 분류

복지 / 12

공동체 관련 (마을, 지역문제 등) / 12

환경(먹거리 포함) / 9

멘토(시니어강사) / 8

문화 / 7

교육 / 6

일자리 / 6

기타 / 8

5) 아이디어 심사 기준

공익성
아이디어 실행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분명한가
아이디어 실행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실현가능성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제시된 방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가
협업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가

창의성
자아실현에 기반을 두었으며 개성이 있는가
문제의식 및 해결 방식이 독특하고 새로운가
직간접적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개선했는가

6) 1차 아이디어 선정

- 최종 아이디어 6건의 3배수인 18건의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및 최종 아이디어 선정

1)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 일시: 2013. 6. 21(금) 18:00~21:00
- 참가자: 아이디어 심사 통과 18팀, 컨설팅 자문단
- 목적: 아이디어 점검 및 구체화 컨설팅,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 * 아이디어 점검
    - 소셜미션 확인 및 구체화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 확인
    -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는 작업 (창의성, 차별성 강화)
  - * 아이디어 구체화
    - 아이디어를 액션으로 전환하는 방법 구상 및 팁 제공
  - *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 소셜미션 점검과 추진계획 수립 방향을 확인하고 심사 평가 대상이 되는 실행계획서 작성 안내
- 프로그램: 사회공헌 국내외 사례 안내, 워크숍 (자문가 그룹 면담을 통한 컨설팅)
- 특징
  - * First Impressions events
    - 본 공모전의 목적과 가치를 지원자가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혁신, 사회공헌 사례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컨설팅

- 내용 : 아이디어 수준의 구상을 추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조언
- 방식 : 본격적인 컨설팅 시간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

① session 1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3인의 시니어 자문단(김경회, 나종민, 이한철)과 함께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 진행

② session 2 내부역량 분석

아이디어 실행 팀으로 선발될 경우 함께 하게 될 청년 Doer와의 세대공감, 팀 빌딩을 위해 지원자의 내부역량을 분석하는 작업 진행(이창준)

* 컨설팅단 소개

김경회

-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전 한덕개발 CEO

나종민

- 전 MicroStrategy 지사장
- 현 바라봄사진관 대표
- 송석복지재단 이사

이한철

- 현 사회혁신기업 보잉 대표
- 전 인터넷 포털 신규사업개발팀장 광고대행사 기획팀장

이창준

- 현 구루피플스 CEO
- 교육학 전공, 경영학 박사
- 100여 개 기업 및 관공서 대상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 진행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2) 본선 심사 기준

*** 시니어 관련성**

- 시니어가 주도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는가
-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보이는가
- 아이디어를 실제 운영할 의지 및 계획이 있는가

*** 공익성**

- 아이디어 실행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분명한가
- 아이디어 실행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 사회파급성**

-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아이디어인가
-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사람들이 혜택이나 효용을 누릴 수 있는가
- 아이디어가 해당 분야 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다른 시니어들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혁신성**

- 아이디어 실현 방안이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 새로움을 제시하는가
- 문제의식을 드러낸 방식이 돋보일 정도로 뛰어난가

3) 최종 아이디어 선정

• 최종 아이디어 6건 확정

no.	제목	내용
1	시니어 나.공.모.창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스토리영상 제작 및 플랫폼 구축
2	성북동 문화유산 알리미	성북구의 역사문화유산을 영문책자, 사이트로 제작하여 홍보
3	홀씨뿌리기	시설 퇴소청소년들에게 실질적 경제적 독립을 위한 경제교육 기획
4	개성톡톡 동네작은시장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화곡 중앙골목시장의 콘셉트를 만들고 이미지화해서 차별화하기
5	공감영화제	의미 있지만 상영관을 찾기 쉽지 않은 영화들을 모아 영화제 개최
6	시시콜콜 마을 상담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을상담실을 열어 마을에서 소통을 시작

청년 Doer[2](주니어 참가자) 모집

6개의 실행 아이디어가 선정 된 후, 각 아이디어를 함께 펼쳐 나갈 청년 Doer를 모집하였다.

1) 공모내용 : '아이디어를 달리게 하는 힘! Ten-Week-Run Happy Together.'
최종아이디어 6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2) 공모대상 :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2,30대 청년

3) 지원자 : 54명(남성 15명, 여성 39명)

4) 지원 동기

2) 청년 Doer: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의 아이디어 실행에 참여할 청년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프로젝트를 함께 리드하는 구성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Doer'라는 명칭으로 주니어를 모집하였다.

5) 최종 선정 결과

총 16인 선정 (경쟁률 약 3.3대1, 남성 7명, 여성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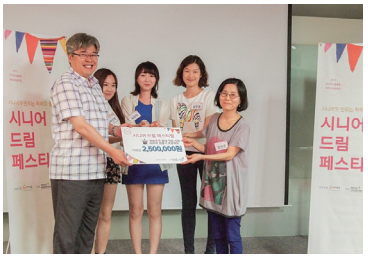
본 선

1)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13. 7. 20(토) 13:30~18:00
- 장소 :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
- 대상 : 최종 선정 아이디어 제안자 및 청년 Doer
- 주요 내용 : 아이디어 공유, 팀 빌딩 및 팀별 아이덴티티 구축
  - 팀별 프로젝트 비용으로 250만 원(10주) 지원

	시간	세부내용
사전 OT (only Junior)	12:30~13:30	[First Impression] 페스티벌 안내 및 자기소개
본선 OT (I)	13:30~14:00	[First Impression] 아이스 브레이킹_주사위는 던져졌다!
	14:00~14:10	[오프닝] 환영사, 프로그램 경과 보고
	14:10~14:50	[팀별논의 1] 아이디어 스토리텔링
	14:50~15:00	[휴식 시간]
본선 OT (II)	15:00~16:50	[팀 빌딩]
	16:50~17:10	[OT] 전체 공지, 일정 안내
	17:10~17:50	[팀별논의 2] 팀 아이덴티티_우리는 팀이다! 발표_팀 소개
	17:50~18:00	[클로징] 지원금 수여식

팀별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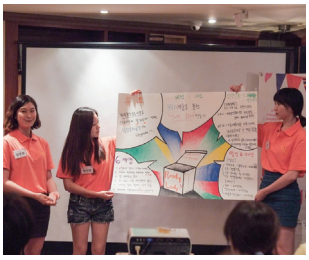


2) 본선 워크숍

- 일시 : 2013. 7. 27(토) 13:00~21:00
- 장소 : 카페 더 웨이 (씽크카페)
- 대상 : 최종 선정 아이디어 6팀
- 주요 내용 : '본선 구상화하다'
  팀 비전, 미션, 일정(예산 포함) 구체화 작업

	시간	세부내용
오프닝	13:00~13:50	[Opening] 워크숍 일정 소개 워크룸 선택 게임_마쉬멜로우 챌린지
강연	13:50~15:20	[Celebrate Difference] 창조적 수행을 위한 시작
워크숍	15:20~18:00	[Good Lab] 팀별 논의: Ten-Week-Run! 합의된 팀 비전, 미션, 목표(10주 후) 일정, 예산, 6계명(팀 규칙) 등
	18:00~19:00	[저녁 식사]
	19:00~20:00	[Group Activity] '5분으로 말하는 10주 이야기'
발표	20:00~21:00	[Presentation] 팀 발표 및 코멘트

본선 워크숍



3) 점검

- 목적

  *** 프로젝트 실행 과정 및 속도 점검**

  - 프로젝트 실행 전반(전체 계획 대비 실행 속도, 예산, 목적에 맞는 방향성)에 대한 점검
  - 최종 목표물에 대한 적합한 실행 활동 점검

  *** 소셜미션 재확인**

  - 소셜미션 확인 및 구체화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 확인
  - 사회공헌활동의 가치에 대한 격려, 실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공감과 팁 제공

  *** 세대통합 과정 확인**

  - 팀 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수준, 과정 점검
  - 시니어, 주니어 간의 세대 공감 및 통합 수준 점검

• 개요

*** 1차 점검**

• 일시: 8월 12일, 14일_프로젝트 실행 4주차

• 장소: 청년허브

• 참가자: 6개 팀 + 자문단 3인

* Hidden Teller (성북동 문화 유산 알리미), 느티산들 (시시콜콜 마을상담실 산드래미), ReadyLady (개성톡톡 동네작은시장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민.씨 (홀씨뿌리기), NEDAQ (시니어 나.공.모.창), 씨공감 (공감영화제)

• 점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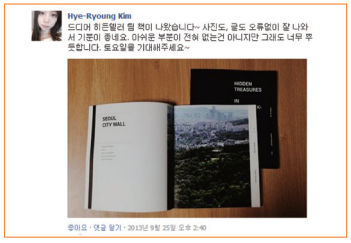
팀명(아이디어명)	진행상황	자문단 코멘트
Hidden Teller (성북동 문화유산 알리미)	전체 회의/성북동 답사/자료수집 및 책 제작 회의(답사 영상)/답사지 관련 영문 콘텐츠 작업	• 성북동 문화유산 알리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해외에 성북동 역사를 알리는 것이 초점인지, 관광 유도가 초점인지 주요 목적을 확고히 하고 콘텐츠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 • 홈페이지 구성에서 비주얼 부분에 대한 코멘트 • 각 분야의 전문가 (사진 등) 섭외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
Ready Lady (개성톡톡 동네 작은시장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화곡 중앙골목시장 답사, 콘셉트 도출, 기존 사례 리서치/상인회 미팅/콘셉트 재점검과 구체적인 시각화 방안 논의	• 시간, 공간, 예산의 제약으로 시장 콘셉트나 아이덴티티 작업은 어려워 보이니 팝업 형식의 이미지 작업에 대한 논의 • 팀원인 디자이너 중심이 아닌 고객이 되는 상인 중심의 이미지 작업이 필요하므로 상인과 접촉을 늘릴 것
느티산들 (시시콜콜 마을상담실 산드래미)	산드래미마을 답사/상담실 확보/상담 관련 전문가 미팅(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상담실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상담실이라는 공간과 단순 커뮤니티 모임 공간과 차별성 확보가 중요
민.씨 (홀씨뿌리기)	역할 분담 회의/ 청소년 경제교육 실태 조사	• 시설 퇴소 청소년에 집중하는 이유가 좀 더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NEDAQ (시니어 나.공.모.창)	멘티용 설문지 구성 및 멘토 선정 회의, 설문(온라인) 시작/모의촬영/모의 촬영 편집 영상 피드백 회의/촬영1_한국엔젤 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인터뷰/ 2차 인터뷰 대상 섭외 중	• 영상으로 담아낸 시니어의 이야기를 대중이 지루해 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매력 있는 구성이 필요
씨공감 (공감영화제)	상영장 답사 및 확정(신촌 소통홀)/ 홍보방안 및 팸플릿 제작 방향 회의	• 모객이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홍보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수백 명의 관객을 어떻게 모객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전략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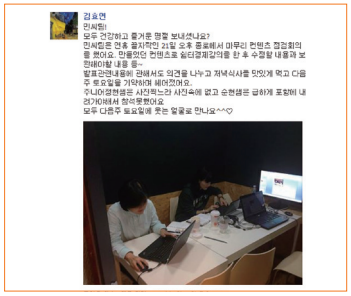
* 2차 점검

- 일시: 9월 6~7일_프로젝트 실행 7주차
- 장소: 스페이스 노아
- 참가자: 6개 팀 + 자문단 3인
  * Hidden Teller (성북동 문화 유산 알리미), 느티산들 (시시콜콜 마을상담실 산드래미)
  ReadyLady (개성톡톡 동네 작은시장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민.씨 (홀씨뿌리기)
  NEDAQ (시니어 나.공.모.창), 씨공감 (공감영화제)
- 점검내용 : 각 팀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보고 및 결선대회 발표 내용 점검

4) SNS 활용

-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각 팀은 매주 진행 상황 및 예산 지출내역 공개





최종결선

1) 개요

- 일시: 2013. 9. 28(토) 14:00~17:00
- 장소: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내용: 개회식, 프레젠테이션 (최종 선정된 6개 팀의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와 실행 결과 소개 + 10주간의 실행 기록)
  결과 발표 및 시상

시간	행사내용
14:00~14:05	사회자 인사 및 내외빈 소개
14:05~14:15	인사말
	축사
14:15~14:20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소개
	심사기준 안내
14:20~15:40	팀별 프로젝트 발표
15:40~16:00	휴식 / 심사 및 현장 투표
16:00~16:10	2013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여정 영상
16:10~16:40	심사위원 총평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6:40~17:00	기념촬영

2) 심사

*** 심사위원 구성**

서재경 (심사위원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름다운 서당 대표)

조대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장), 고병옥 (교보다솜이지원팀 센터장)

이경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 심사기준**

- 적합성 및 실행력
  -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 아이디어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계획과 과정, 수단이 적절하게 연결되었는가
- 완성도
  - 전체 완성도 대비 구현 정도는 어떠한가
- 확장성
  -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있는가
  -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가
- 전달력
  - 발표 자료를 잘 정리했고 설득력 있게 발표했는가

*** 심사내역**

1등(1팀)	상금 300만 원	2등(1팀)	상금 200만 원
3등(1팀)	상금 100만 원	장려상(3팀)	부상

*참고 : 인기상은 현장 관객들의 투표로 결정됨
최종 아이디어 6개 팀은 250만 원 지원금과 워크숍 등의 지원을 받아 10주간 프로젝트를 펼쳤음

3) 심사결과

1등	Hidden Teller (성북동 문화 유산 알리미)[3]
2등	NEDAQ (시니어 나.공.모.창)
3등	ReadyLady (개성톡톡 동네작은시장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장려상	느티산들 (시시콜콜 마을상담실 산드래미), 민.씨 (홀씨뿌리기), 씨공감 (공감영화제)
인기상	씨공감 (공감영화제)

4) 결선대회 영상 : http://youtu.be/UkcjL0OA87E

1등_ Hidden Teller

3) 김유나, '경험·지혜·열성, 사회에 풀어놓으니 실버인생 빛난다', 국민일보, 2013년 9월 30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05709&cp=nv

2등_ NE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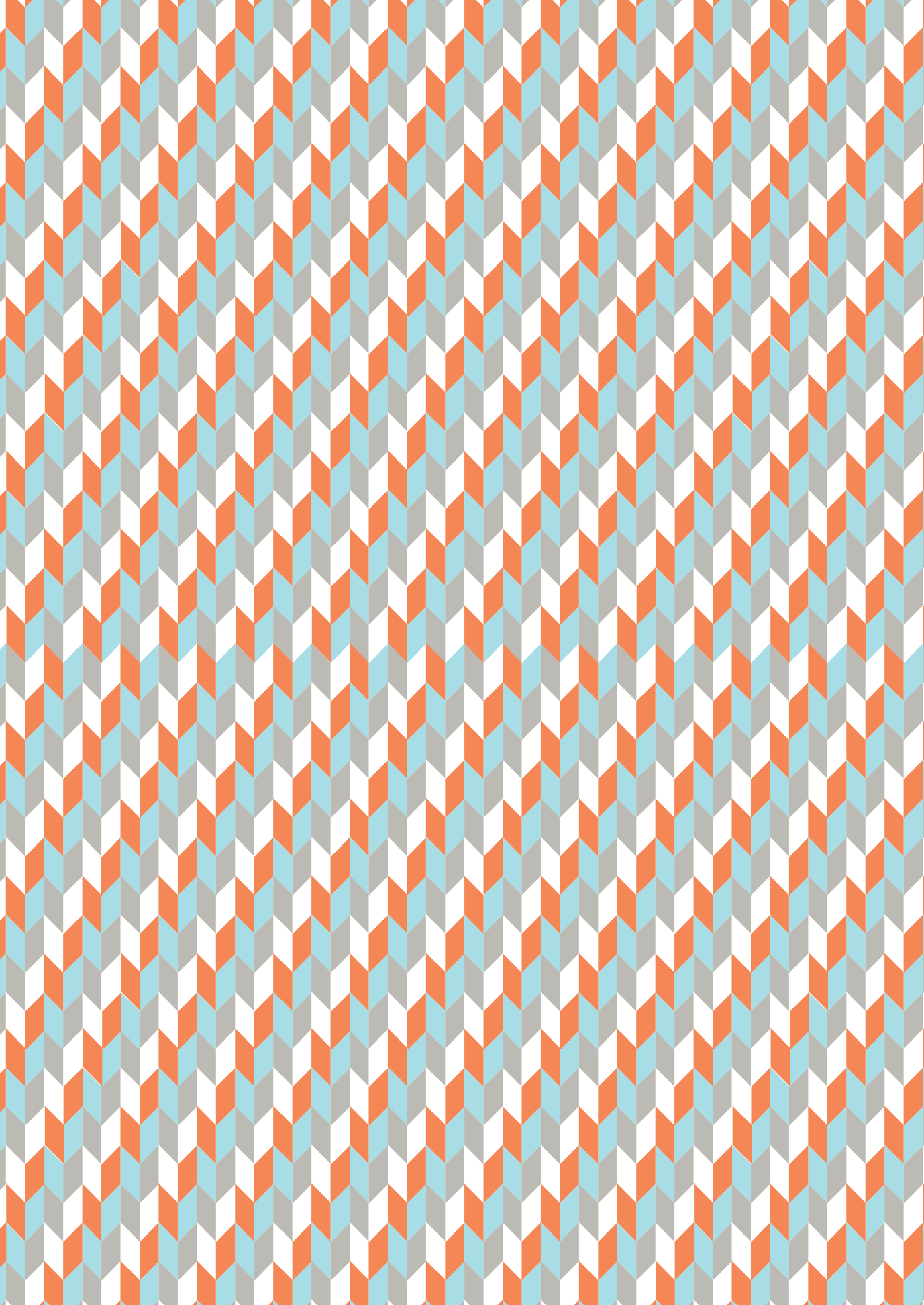
3등_ ReadyLady

장려상_씨공감

장려상_느티산들

장려상_민.씨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결선 대회



SECTION 3

총 평

참가자 평가

총평 및 제안

참가자 평가

* 이 보고서의 평가는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4] 및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 사회공헌 모델 발굴 및 문화 확산

이번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은 '당신의 꿈이 이웃을 풍요롭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니어들이 각자의 성향과 욕구가 담긴 아이디어로 참여하였다. 최종 아이디어 6개 팀 역시 각 참가자들이 개성이 담긴 내용으로, 시니어의 꿈에 접근하면서 다양한 모델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다."
> "버킷리스트 하나를 지웠다."
>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정이 넘치는 마을로 가꾸고 싶다는 나의 꿈이 통한 것일까?
> 나의 아이디어가 실행 팀으로 선정되었다."
>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4) 참가자들의 후기는 연재기사 형태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makehope.org/4777, http://www.makehope.org/4792,
http://www.makehope.org/4813, http://www.makehope.org/4830,
http://www.makehope.org/4841, http://www.makehope.org/4843

시니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모델 발굴도 이어졌다.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하다가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 시니어 참가자(디자인 관련 경력자) 후기 중

특히 참여자들은 공모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공헌활동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청년들과 함께 (이번) 아이디어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통하며 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축제가 끝난 지금 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이번 아이디어 마을 상담실은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이 막을 내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은 막을 내렸지만, 지금도 나는 매주 목요일 장애인 복지관에서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소비교육을 하고 꿈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에서 힘을 얻고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영문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체를 설립했다. 나의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 뿐 아니라 참여자 주위의 변화까지 끌어내서 사회공헌 문화 확산 효과를 가져왔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대되었다. 내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여러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
"평범한 주부에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돌아가는 데 조금 공헌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을에 이사 와서 적응하지 못했다는 분이 (공모전 아이디어로 시작한) 마을상담실 간담회 이후 이사 오길 잘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이 의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아이디어 진행하는 데)콘텐츠 개발에 협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이런 것을 만든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 반응이었다. 결과물이 나오면 그분들의 도움도 사회공헌이라고 느낄 것이다."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던 일은 아주 많은 분이 (나의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재능기부로 참여해주었다는 것이다. 물품 협찬, 기부금, 아이디어 제공, 디자인 작업 등 많은 부분의 재능기부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려는 분이 많구나 생각하게 되

었다. 그래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 지나가면서 반가워하고 시장 분들도 좋아했다.”
- 시니어 참가자 인터뷰 중

이런 인식 변화는 청년 참가자들한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면 자원봉사나 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아이디어라는 형태를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공헌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기부한다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만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것에 공감을 많이 했다. 연결해주고 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사회공헌이 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 많이 느꼈다.”
“사회공헌프로젝트는 내가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주민과 같이 한다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주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안 주셨다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예쁘다고 해주니 작업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크게 관심이 생겼다.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도 사회공헌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공헌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다.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뜻이 깊고, 그냥 디자인하기보다는 공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사회공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다."
- 청년 참가자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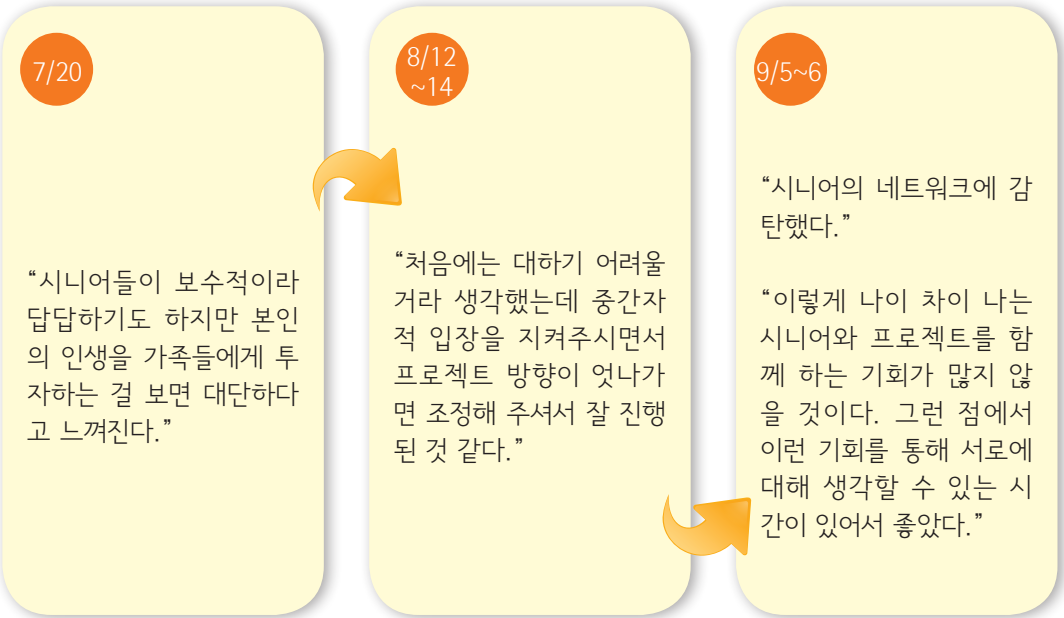
다만, 아직도 사회공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프로젝트의 내용이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인터뷰를 해주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 오해를 푸는 데 시간이 걸렸다. 순수한 사회공헌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언가 바라지 않는 사회공헌이 있느냐고 묻는 모습을 보며 아직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시니어참가자 인터뷰 중

2) 세대공감 관련

이번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은 시니어와 청년세대가 팀을 이루어 10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해서 세대 간 접촉 기회를 높였다. 참가자들의 후기와 인터뷰를 보면 세대 간 접촉이 세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참가자들의 인터뷰 추이를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최종 아이디어 6개 팀, 총 24명에 대해 팀 구성 전 한 차례(7/20), 프로젝트 진행 중에 두 차례(8/12~14), (9.5~6), 총 세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7/20

"지금의 시니어는 그 윗세대와는 달리 좀 더 능동적으로 보인다."

8/12 ~14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 세대의 IT 활용 능력이 합해져서 풍요로운 팀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다."

9/5~6

"시니어 분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받는 등 깊이 소통할 기회를 통해 시니어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7/20

"흰머리, 주름 많음, 말이 안 통할 것 같다는 느낌, 그저 우리 부모님 같지 않을까."

"아빠를 보면서 시니어분들은 똑똑하시지만 고지식한 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다."

"샌드위치 세대이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아예 노후 준비를 안 하시고 걱정만 우선이라 혼란을 겪을 것 같다."

8/12 ~14

"세대가 달라 공유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소통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9/5~6

"시니어를 처음 보았을 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몰랐는데 자주 만나보니 친해져서 괜찮았다."

7/20

"지금 청년 실업이 높아 시니어 세대가 아랫세대들을 좀 누르고 그런 것 같아서 시니어에 대해 인식이 안 좋은 거 같다."

8/12 ~14

"청년보다 열정이 더 많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9/5~6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면서 점점 친해진 것도 있고 의사소통에도 삐거덕거림이 있었지만 자주 만나보니 거리감이 없어진 것 같다."

7/20

"시니어와 나는 별개인 듯하고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어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

"시니어와 함께 하는 거라 특이한 경험이 될 것 같다."

8/12 ~14

"시니어와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9/5~6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자주 만나니 뜻이 잘 통하고 같은 분야의 시니어라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많아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이런 인식 변화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한 청년 참가자의 후기이다.

"서너 살 어린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 그래서일까? '나이 차이가 50년 가까이 나는 시니어 선생님과 얼마나 높은 세대의 벽을 마주할까!' 걱정스러웠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달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대립이 세대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세대 차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커졌다. 그런데 세대 차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서로가 다른 세대 속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그것이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사그라졌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시니어 세대와 직접 마주하면서,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은 세대의 벽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에 비해 시니어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와 만나기 전부터,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배려 등 태도에 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대 간의 접촉이 세대공감의 가능성을 끌어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젊음과 경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실험이었다. 실험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시작하니 더 많은 배려를 받은 사람은 나였다."
"프로젝트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같은 분야의 후배인 청년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라 망설였지만, 세대공감의 공감은 결코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차이가 인생을 더 맛나게 하는 게 아닐까."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청년 참가자의 후기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인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이었다. 대학교의 과제와 발표, 프로젝트로 다져진 청년들이 기술에 시니어의 경험과 넓은 시야기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나와 다른 세대 분들과도 비전만 같다면 얼마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시니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배운 점들은 내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니어의 인생 경험이나 지혜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첫 인사를 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명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지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시니어들은 고리타분하지 않고 열정적이고 진지하셨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주변의 시니어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지하철에서 시니어들을 보며 '저 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분들의 배경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시니어들의 경험을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시니어와 어울리는 것을 생각보다 꺼려하지 않고 시니어도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니어와 청년들의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유익하고 유쾌하였다."
- 청년 참가자 후기 중

다만, 이러한 세대 공감은 단순 접촉이 아닌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지속성이 필요함을 과제로 던져주었다.

"속도와 성과로만 평가받으며 살아온 버릇으로 돌아보면 (청년 세대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었더라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시니어 참가자 후기 중

"요즘 뉴스를 보면 20, 30대와 40대 이후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시니어와 청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과 같은 프로그램이 보편화된다면 그 분열의 틈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 청년 참가자 후기 중

총평 및 제안

1) 사회공헌모델 발굴 및 문화 확산 관련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응모한 시니어들의 참여 동기 중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은 본인의 욕구와 경력에 기초해 참여한 점에서 다른 활동보다 더 적극성을 보였다. 프로젝트 이후에도 참가자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후기와 인터뷰를 보면 시니어의 사회공헌모델 발굴에 시니어 각 개인의 흥미와 꿈에서 출발하는 방식은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사회공헌 아이디어 응모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획을 추가한다면 시니어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개성이 담긴 다양한 사회공헌모델 발굴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의 후기와 인터뷰를 보면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주위 반응에 놀라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홍보는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공모전 안내 및 홍보, 최종 결선 보도자료, 기사 등 1차적인 홍보계획은 물론이고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프로젝트 진행 과정 자체를 홍보한다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프로그램 관련

이번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에서는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단순한 아이디어 상태로 접수받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위해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기획했다. (워크숍은 1차 서류를 통과한 18팀이 대상이었다.)
시니어 참가자들 대부분 4시간 동안 이루어진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문단의 컨설팅을 통해 단순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점 자체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는 컨설팅을 진행한 자문단 의견과도 동일하다.
자문단은 좀 더 많은 시니어 참가자들에게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 및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문제점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단을 통한 점검기간을 가졌는데, 시니어 및 청년 참가자 모두 이 과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와 객관적인 조언으로 프로젝트 완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였다.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자문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과 사전 회의 등을 거쳐 멘토링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전문가 인력풀을 늘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위 평가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 일반적으로 시니어와 청년 세대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팀을 구성할 때 참가자들은 긴장감을 보였다. 이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번에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기간에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팀 빌딩 및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2013년도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기획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http://happysenior.makehope.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27 (평창동, 비전빌딩 2-4층) 110-847

www.makehope.org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이 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친환경용지를 사용했습니다.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110-847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